



# 지역 소식

구원 사업을 서두르는 성도들



## LDS 소셜 미디어 엑스포

2부의 부스 활동 순서에서 페이스북 부스를 방문한 성도들. 페이스북 프로필에서 종교관에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추가하기, 페이스북 그룹 #몰몬좋아요 가입하기 등의 미션 활동에 참여하는 중이다.



**의와 진리로 가득 찬 메시지, 곧 참되고, 교화적이며, 칭찬할 만한 메시지가 그야말로 홍수와 같이 땅을 휩쓸게 하시기 바랍니다.**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마치 홍수와 같이 땅을 휩쓸게 하리니," 브리검 영 대학교 교육 주간 말씀, 2014년 8월 19일

**지**난 2월 28일 오후 2시, 서울 남스테이크 영등포 와드에서 서울, 인천 및 경기도 지역 전 회원을 대상으로 'LDS(엘디에스) 소셜 미디어 엑스포'가 열렸다. 이미 미국, 뉴질랜드 등 다양한 국가의 교회에서 소셜 미디어 엑스포가 성공적으로 개최된 바 있다.

최근,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의 발달로 여러 개인이 정보를 접하는 방식이 변화되어 왔다. 이전까지는 공식적인 언론을 통해 정보를 습득했다면, 이제는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에 있는 개인의 글을 통해서도 정보를 얻는다. 교회를 처음 접하는 비회원도 마찬가지다. 이들은 종종 다른 사람이 인터넷에 게시한 글과 사진을 통해 교회에 대해 알게 된다. 블로그, 페이스북, 카카오토리, 인터넷 카페 등이 정보의 원천이 된다.

이 엑스포의 목적은 소셜 미디어의 적절한 활용 방법을 배움으로써 이를 통해 복음을

올바르고 효과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알리도록 하는 것이다. 한국에서 처음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많은 회원들이 참석하여 그 기대를 더했다.

강서 스테이크의 최상섭 형제는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에 능숙한 세대는 아니지만, 이날 가장 적극적으로 활동한 참석자 중 하나다. 그는 이렇게 전한다. "우리 교회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악의적인 게시물에 올바르게 대응하는 방법을 알고자 이곳에 왔습니다. 교회와 복음에 대해 정확하게 알리고 싶습니다."

전체 모임은 1부의 미니클래스와 2부의 부스 활동으로 구성되었다.

1부의 미니클래스는 영등포 와드 2층의 여러 공과방에서 진행되었다. 카카오토리, 페이스북, 블로그, 몰몬의 샘 등 소셜 미디어에 대한 총 6개의 클래스가 열렸다.

참석자들은 참석을 원하는 4개의 클래스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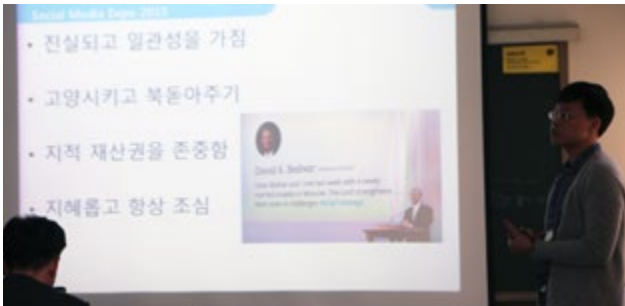
**1부, 미니 클래스 시간**

미니 클래스에 참석한 회원들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중 하나인 '카카오 스토리'의 홍보 영상을 시청하고 있다.



**1부, 미니 클래스 시간**

미니 클래스에 참석한 성도들이 자원 봉사자의 발표에 경청하고 있다. 네이버 지식in이 무엇인지에 대해 배우는 중이다.



**1부, 미니 클래스 시간**

'네이버 카페' 미니클래스 발표자가 소셜 미디어를 사용할 때 기억해야 할 기본적인 예절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



**1부, 미니 클래스 시간**

'카카오 스토리' 미니 클래스에서 발표자와 참석자가 질문을 주고 받고 있다.



**2부, 부스 활동 시간**

참석자들이 네이버 부스에서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활동 내용은 블로그 프로필에 '물론'이나 '후기 성도'라고 적거나 지식in 답변 작성하기 등이었다.



**2부, 부스 활동 시간**

자원 봉사자가 1:1로 참석자의 활동(미션 수행)을 돕고 있다.



**2부, 부스 활동 시간**

참석자들이 서로 도와가며 활동(미션 수행)을 하고 있다.



**2부, 부스 활동 시간**

한 참석자가 '엑스포 인증샷 올리기'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 대형 포스터의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2부, 부스 활동 시간**

참석자들이 부스 곳곳에 모여 설명을 듣고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포스터**

LDS 소셜 미디어 엑스포는 2015년 2월 28일 토요일 오후 2시, 서울 남 스테이크 영등포 와드에서 열렸다.

해당 소셜 미디어의 기본적인 개념을 안내받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배웠다. 네이버 카페 클래스를 맡은 남 스테이크의 정신영 형제가 “인터넷에서 우리는 진실함과 일관성을 가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고양시키고 복돋아 줍시다. 지적 재산을 존중해야 하는 것을 잊지 말아 주세요.”라고 말했듯이, 클래스 담당자들은 소셜 미디어를 이용하는 후기 성도의 기본 태도에 대해서도 조언했다.

각 미니 클래스에서는 질의응답 시간도 있었으며, 이를 통해 참석자들은 각 소셜 미디어에 대한 궁금증도 해결했다.

중학생 자녀를 둔 김포 와드 전석하 자매는 그간 소셜 미디어가 가져오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염려해 왔다고 한다. 그 자매는 다음과 같이 참석 소감을 나누었다.

“소셜 미디어의 지나친 사용은 여러 부작용을 낳기 때문에 저와 자녀들은 평소 소셜 미디어를 거의 이용하지 않았습니니다. 하지만 오늘 배운 것은, 소셜 미디어를 좋은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소셜 미디어는 좋은 수단일 수도 있고 일상 생활에 지장을 주는 방해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소셜 미디어를 올바르게 사용해서 친구들에게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3층 활동실에서 열린 2부 순서를 통해, 참석자들은 그저 소셜 미디어에 대해 배우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로 이를 활용해 보면서 각자의 목표도 세울 수 있었다. 3층은 소셜 미디어별 부스가 설치되어, 박람회 및 미션 수행 형식으로 활동이 진행되었다. 참석자들은 소셜 미디어를 활용하여 재미있고 간단하게 수행할 수 있는 미션을 받았다. 어떤 참석자는 페이스북 계정을 만드는 법을 처음으로 배우기도 했고, 카카오톡 ‘자기 소개란’에 교회 회원이라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 선교 사업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도 배웠다.

3부 순서에서, 참석자들은 적극적으로 미션을 수행했다. 이들은 소셜 미디어 상에서

약 200건의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 내고 약 500회의 공유 활동을 달성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사람은 약 250명이었다. 남녀노소 다양한 회원들이 왔으며, 특히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돋보였다. 화곡 와드 청남 노준성 형제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소셜 미디어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평소에 소셜 미디어에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오늘 새로운 사실을 배웠어요. 소셜 미디어를 통해 우리 교회에 대해 알릴 수 있다는 것이요.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복음이 사람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어요. 블로그 등에 새롭게 관심을 갖게 됐어요.”

이 행사를 준비한 봉사자는 약 40여 명으로, 청년 독신을 중심으로, 인터넷에 익숙한 회원들이 자원 봉사자로서 수고했다.

자원 봉사자 중 한 명이었던 동대문 스테이크 중랑 와드의 장소영 자매는 이렇게 전한다.

“온라인에 퍼진 몇몇 유언비어로 인해, 회복된 교회의 참됨이 가려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지도자들은 맞서 다투고 비방하라고 권고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가 아는 참된 것들을 나누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은 신앙을 가지지 않은 사람에게 간증을 나누는 일은 때때로 어렵지만, 그럼에도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주로 물문의 샘 사이트를 소개하고 체험하도록 보조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새로운 사이트라 생소하게 느끼시기도 하고 소셜 미디어에 서툰 성도분들도 계셨지만 모두 열의를 가지고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런 모습에 저도 시간이 지날수록 더 힘이 나서 열과 성의를 다했습니다.

직접 간증을 나누기 어렵거나 좀 더 많은 분들에게 주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셨던 분들께 이 모임이 의미있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도울 수 있어서 기쁩니다.”

이번 대회를 시작으로, 앞으로 전국 모든 스테이크 및 선교부 지역에서 소셜 미디어 엑스포 행사와 활동이 이어질 예정이다. ■

“온라인에 퍼진 몇몇 유언비어로 인해, 회복된 교회의 참됨이 가려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지도자들은 맞서 다투고 비방하라고 권고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가 아는 참된 것들을 나누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연은 봉사라는 이름으로 계속되고 있다. 구 장로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의 모든 부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도구입니다. 그것은 서로에게 하는 봉사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 축복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해야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침례 2주 후에 받은 신권회 교사 부름을 시작으로, 구 장로는 부산 선교부 전임 선교사(1985년 11월~1988년 1월), 지부 및 스테이크 서기, 장로 정원회 회장, 지부 회장, 스테이크 집행 서기, 고등평의원, 스테이크 회장단 보좌, 수원 스테이크 회장(2001년 10월~2009년 5월) 등의 직분을 수행했다.

## 지역 칠십인 구승훈 장로

“나 주 하나님은 그대를 불러 더 훌륭한 일을 시키려고 준비하고 있느니라.”

**구** 승훈 장로는 1962년 5월 8일 서울에서 출생했다. 그는 1981년 9월, 길에서 만난 선교사들에게서 받은 물몬경을 읽고 크게 감동받아 1982년 3월 28일에 침례받았다. 구 장로를 만나 물몬경을 전해 준 선교사는 현재 서울 서 스테이크 회장으로 봉사하고 있는 이인호 회장과, 미국 미네소타 주 마샬 지부 회장단으로 봉사하고 있는 엘마 헤일 형제이다. 구 장로는 토론 후 엠 패트릭 그린 형제와 김기용 형제에게 침례 및 확인을 받았다.

구 장로는 자신의 개종을 위해 주님께서 이 의로운 신권 지도자들을 보내 주셨다고 믿고 있으며, 그들에게 온 마음을 다해 감사를 표한다. 이인호 회장은 구승훈 장로가 개종 4년 후 목포 와드 전임 선교사로 봉사할 때, 목포 와드의 감독이었으며, 현재는 구 장로가 담당하는 서울 남 지역에서 스테이크 회장으로 봉사하고 있다. 주님께서 연출하시고 허락하신 이 두 사람의

스테이크 회장 해임 후에는 세미나리 교사로 약 3년 간 봉사했으며, 지역 칠십인으로 부름받기 전 그는 성전 봉사자, 한국 교회 역사 위원회, 와드 대체사 그룹 교사, 지역 칠십인 집행 서기 등으로 봉사하고 있었다.

구 장로는 해군에서 3년간의 군 복무를 마쳤다. 대학에서 건축을 전공한 그는 엔지니어링 회사의 대표로서, 주로 정유 화학 회사 등과 플랜트 시설물 공사비 감독 및 정산 등의 업무로 거래해 왔다.

1991년 11월 16일 신명화 자매와 서울 성전에서 결혼하여 슬하에 호연, 본우, 본영 등 1녀 2남을 두고 있다.

구 장로는 선교사 시절 특별한 영감을 통해 일지에 작성한 다음 내용을 신앙생활의 지표로 삼아 왔다. “나 주 하나님은 그대를 불러 더 훌륭한 일을 시키려고 준비하고 있느니라. 너는 너의 손을 정결히 씻고 내가 너를 불러 시킬 일에

온전하고 합당하게 임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  
(1987년 5월 20일, 선교사 일지에서)

구 장로는 새로 받은 부름에 대해 이렇게 소감을 밝혔다.

“이 부름을 수행하기에 합당하도록 제 손을 정결히 씻고, 주님과 성도들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근에 읽은 경전 구절 가운데 가장 큰 느낌을 준 구절을 소개하겠습니다. 흠정역(King James Version) 성경 히브리서 7장 19절에는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더 좋은 소망을 가져옴은 온전하게 하였나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개역

개정판 성경과 다른 부분(사체)이 있는데 바로 ‘더 좋은 소망’이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는 표현입니다.

지도자와 회원 모두 현재 품고 있는 소망보다 더 좋은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 소망은 온전함을 향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합니다. 소망은 우리의 의로운 욕구에서 출발하여 점점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고 의로운 열망 또는 욕구에 우리의 뜻과 주님의 축복이 더해져서, 의로운 소망, 더 좋은 소망으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이 더 좋은 소망이 우리의 신앙을 키워 주는 참된 원리이며 은사임을 간증드립니다.” ■

■ 자립 지원 서비스 제공 연재 기사

# 너 앞으로 뭐할래?

자립 온 ON 무빙 포워드  
Moving Forward

청년들을 위한 성공적인 미래 설계 및 경력 개발 지원 자립 영적 모임



사진: 자립 지원 영적 모임에서 발표 중인 패널 원 시련

**지**난 2015년 2월 28일 토요일 저녁, ‘너는 앞으로 뭐할래?’라는 제목으로, 청년들을 위한 자립 영적 모임이 열렸다. 이 모임에는 현업에 종사하는 회원 8명이 패널로 초대되었으며, 청년 독신, 청소년, 청소년의 부모 등 50여 명의 회원이 참석했다.

패널들은 자신의 분야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현업을 하기까지 준비한 과정이나 경력 등에

대해 소개했다. 패널들이 돌아가며 각 분야에 대해 간단하게 발표한 뒤 모든 패널과 함께하는 질의응답 시간이 주어졌다. 조선업, 경영 컨설팅, 글로벌 기업, 무역 관련 개인 창업, 유학원, 변리사 등, 패널들의 분야는 매우 다양했다.

참석자들은 각 분야에 대해 간단하게나마 접할 수 있었으며, 해당 분야로 가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머리 속에 그려볼 수 있었다. 또한 취업이나 진로에 대한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하며, 패널에게 조언을 구했다.

이날 모임을 통해 참석자들은 새로운 분야를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여러 가능성을 상상해보는 기회를 얻었다. 더불어, 참석자들은 특정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었을 뿐 아니라, 시련을 극복했던 패널의 개인적인 경험 등 자립의 원리와 태도에 영적인 교훈도 얻을 수 있었다. ■

# 신앙과 영으로 거둔 승리의 나날들 II

간염의 위기, 1958년 한국에서 봉사하던 선교사들

**한** 국 교회 60주년을 기념하며, 지난 주에 이어 헌납 당시 한국에서 행해진 선교 사업을 자세히 들여다본다. 1955년, 한국이 북음 전도 지역으로 헌납되고 북극동 선교부로 편입되었고, 공식적인 선교 사업이 한국에서 시작되었다. 당시 봉사하던 선교사들의 일화를 통해 그들의 신앙과 사랑을 엿볼 수 있다.

앤드리스 북극동 선교부 회장은 이렇게 회고했다.

“선교사들의 건강을 가장 심각하게 위협했던 질병은 바로 간염이었다. 1958년 여름까지 열 명의 장로 가운데 다섯 명이 이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었다. 모든 선교부 회장의 첫째 책임은 선교사들의 안녕이었기에, 나는 선교사들의 건강을 크게 걱정했다. 이들 젊은이들을 처음으로 한국으로 보낸 사람이 바로 나였기 때문에 더 그랬다. 이들 선교사들의 생명에 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내게 있었고 나는 이 점을 뼈저리게 느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선교사들을 한국으로 보냈을 때 주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영감을 주셨음을 알고 있었다. 비록 생활 여건이 열악하더라도, 그 시기가 적절했음을 알고 있었으며, 선교사들이 한국에 남아야 한다는 것이 주님의 뜻을 알고 있었다. 더욱이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극복할 수 있고 한국에서 [주님의] 사업이 발전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따라서 간염으로 생긴 이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고, 또 극복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

1958년 여름, 나는 간염 문제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장로들을 만나러 한국으로 특별 방문을 했다. 선교사들을 철수시키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으며, 한국 지방부를 폐쇄하려는 의도도 전혀 없었다. 오히려 내 의도는 모든 문제들을

극복하고 가능한 신속하게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 의사에 따라 한국을 떠나고 싶은데도 목숨을 무릅쓰고 그곳에 남으라고 선교사에게 말할 권리가 내게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내가 한국에 간 목적은 간염에 걸린 채 그리고 간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수고하는 선교사들을 만나 그들의 생각을 들어보고, 문제를 극복할 방법을 논의하고, 각 선교사에게, 원한다면, 한국을 떠날 기회를 주자는 것이었다.

나는 당시 한국에서 수고하고 있는 10명의 선교사 모두를 서울에서 만났다. 애석하게도 당시 참석했던 선교사들의 이름을 일지에 적어 놓지 않았지만, 참석한 사람은 딘 앤더슨 장로, 뉴웰 김볼 장로, 클로드 뉴먼 장로, 데이비드 스트러브 장로, 벌 테일러 장로, 엘 에드워드 브라운 장로, 진 털 장로, 레이 하킨스 장로, 루론 포터 장로, 클라인 캠펠 장로라고 생각된다.

모임 서두에 나는 부모님들이 그들에 대해 갖고 계신 사랑에 대해 말했다. 그들의 안녕에 대해 제일회장단이 갖고 있는 염려와 사랑에 대해 말했다. 그들의 안녕에 대해 내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사랑과 염려에 대해서도 말했다. 간염이 생명에 미치는 심각한 위협에 대해, 그리고 심지어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질병으로 인해 낙오될 가능성에 대해 말했다. 그들이 떠나겠다고 결심하지 않을 경우 그들을 한국에 유지시키겠다는 확고한 결의를 내가 갖고 있지는 않았지만, 이 문제 해결에 관한 한 가지 방안은 그들을 한국에서 철수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방안은 그들이 이 질병을 극복하도록 도우실 것이라는 신앙으로 잔류시키는 것이었다. 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심각한 문제에 관해 그들이 어떻게 느끼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한



위 사진: 부산으로 가는 기차 안에서 게일 이 카 장로와 래리 디 올 장로



원목부터 스트리트, 누먼, 브라운, 톨, 장로, 심정용, 안국, 김홍, 양.

생각을 말해 주도록 부탁했다.

한 사람씩 모든 선교사가 솔직하게 터놓고 그들 마음 속의 생각을 말했다. 한 사람씩 모든 사람이 한국의 형제 자매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커다란 기쁨에 관해 말했다. 한 사람씩 모든 사람이 자신들이 지금 한국에서 봉사하라는 부름을 주님께에서 받았다는 확신에 관해 말했다. 한 사람씩 모든 사람이 한국에 남아서 선교 사업을 완수하고 싶다는 강렬한 소망에 관해 말했다. 한 사람씩 모든 사람이 주님을 믿는 신앙, 그리고 주님께서 자신들을 보살피 주시리라는 믿음에 관해 말했다. 한 사람씩 모든 사람이 한국에서 기꺼이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고, 그리고 한국에서 봉사하다가 죽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여기 보다 더 좋은 장소는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다. 한 사람씩 모든 선교사가 말할 때마다 하염없이 울었다. 한 사람씩 모든 선교사가 말하고 울 때마다 방 안에 있던 우리 모두 또한 하염없이 울었다.

그것은 고통과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이것은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의 눈물이었다. 이것은 모임의 끝에서 흘린 몇 방울의 눈물이 아니었다. 이 거룩한 모임의 처음부터 끝까지 아낌없이 흘린 눈물이었다. 형용하기 어려운 이런 기쁨을 느끼면서 우리의 마음은 서로에 대한, 그리고 우리 주님에 대한 거룩한 사랑으로 결속되었다. 그 모임에 있던 어느 누구도 우리 모두가 그곳에서 느꼈던 그 느낌들을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이 모임의 이런 결과는 내게 놀라운 것이 아니었다. 주님의 영감 아래서 나는 한국에서

수고할 이들 선교사 한 사람 한 사람을 직접 선발했다. 나는 그들의 헌신과 충실함에 대한, 완전한 신뢰를 갖고 있었다. 이 모임의 결과를 사전에 예측했던 나는 교리와 성약 103편 27~28절을 펼치고는 주님의 영감에 찬 그 말들을 다시 읽어 보았었다. 각 선교사가 말씀을 한 후에 내가 말씀을 했다. 말씀을 하면서 나는 계속 울었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눈물을 흘렸다. 그들이 느끼는 것을 나도 느낀다고 말했다. 나는 그들 모두가 한국에서 봉사하도록 주님께에서 부름을 받았음을 나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주님께서 그들이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에서도 한국에 있기를 남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런 다음 교리와 성약 103편 27~28절을 읽었다.

‘어느 누구도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 버리기를 두려워 말지어다. 이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는 자기 목숨을 다시 찾을 것임이니라

‘그리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기꺼이 버리고자 아니하는 자는 나의 제자가 아니니라.’

주님의 영이 함께 하여, 그리고 우리 모두가 느낀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라는 거룩한 느낌에 의해 거룩하게 된 이 모임이 끝나 가면서, 우리의 가슴은 정말 하나로 뭉쳐졌다. 선교사들 모두가 한국에 남을 것을 알게 되고, 또 한국의 형제 자매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사업이 중단 없이 계속될 것을 알게 된 우리 모두는 크게 기뻐다.”<sup>1</sup>

한국 선교 제2막의 주인공은 이런 강한 간증과 복음에 대한 사랑을 지닌 주님의 배우들이었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선한 일의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서 어찌 그리 아름다우고.”(모사이야서 12:21) ■

주  
1. *Korean Mission Journals*, 14~15쪽

# 주님의 경영 방침에 따라

## 홍성 지방부 서산 지부의 당진 그룹

“당진 그룹? 대기업 이름 같네.”라고 회원 중 누군가가 농담했다. ‘그룹’이라는 말은 아직 우리에게 생소하다. 지난 2014년 8월 31일, 홍성 지방부 서산 지부의 ‘당진 그룹’은, 당진시 지역의 회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첫 일요일 모임을 했다. 회원들이 와드나 지부에서 모일 수 없는 곳에서, 지역 회장단의 승인에 따라 그룹이 조직될 수 있다. 그룹은 단위 조직이 아니며, 지부 또는 와드에 소속되어 있다.

최근 한국 내 스테이크 및 와드는 통폐합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오히려, 전국에서 가장 작은 규모 중 하나인 홍성 지방부의 서산 지부에서 새로운 그룹을 창설하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 2013년 여름, 지역의 환경이 변화됨

2014년 당진 그룹이 창설되기 1년 전, 서산 지부는 그전까지 세 들어 있던 건물에서 새로운 건물로 이사했다. 대신, 서산, 당진 등 서해안 지역에 여러 공단이 조성되었고, 내포, 세종 등

신도시들이 들어서면서 유입 인구가 많아졌다. 늘어난 회원을 수용할 수 없었던 서산 지부는 새로운 건물을 요청하였고, 당시 지방부 회장이었던 정석환 형제는 관리본부와 지역 회장단에 “우리 지역에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느낌을 계속 받습니다.”라고 전했다.

새로운 대전 선교부 회장으로 부름받은 신용인 형제도 정석환 형제와 열정을 같이 했다. 마침 2012년 10월 선교사 연령이 낮춰진 후 선교사 수가 급격히 증가하며 선교 사업은 더욱더 활기쳤다. 신 회장은 장로 4명과 자매 2명을 서산 지부에서 봉사하도록 지명하고, 특히 그 중 장로 2명을 당진 지역을 담당하도록 했다.

### 준비된 지역, 그러나 거리의 장벽

당진 지역에서 봉사하기 시작한 오터슨 장로는, “매일 기적을 본다.”고 보고했다. 서산 지부 선교사들이 하얀 셔츠에 반짝이는 명찰을 달고 당진 시내를 활보하자, 그동안 숨겨져 있던 구도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다른 지역에서 토론하다 연락이 끊긴 구도자, 한동안



교회와 떨어져 있던 회원, 심지어 고국에서 교회를 다녔던 외국인 노동자들도, “어? 물론교 선교사?”라며 말을 걸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이 서산 지부에 오기엔 어려움이 많았다. 각자의 집에서 당진 시내의 터미널로 이동하고, 당진 터미널에서 서산 터미널로, 서산 터미널에서 서산 지부로, 족히 두세 시간이 걸리는 여정이었다. 새로 찾은 구도자에게 교회에 가자고 권유하며, 서산에 교회가 있다는 말을 하면 매번, “네? 서산이요?”라며 놀라는 구도자의 반응이 뒤따랐다. 결국에는, “당진에 교회가 있으면 갈 텐데 ...” 라는 말로 대화가 끝나곤 했다. 당진에 사는 서산 지부 회원들이 구도자와 신회원에게 차편을 제공하려 노력했지만 어려운 점이 많았고, 매번 도움을 받는 입장에서조차 부담이었다.

결국, 정석환 형제는 선교부 회장단에게 요청하여, 지역 회장단에 서산 지부에서 당진 지역을 분리하여 당진 지부를 창설할 것을 건의했다.

### 2013년 겨울, 주님이 마련하신 건물

하지만 참석 예상 인원의 수가 적어 지부를 창설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렇다면, 당진에서 일요일 모임만이라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정 형제가 요청하자, 신용인 선교부 회장은 ‘지부’보다 작은, ‘그룹’이라는 단위가 당진에서 창설될 수 있는지 알아보자고 답했다.

지역 회장단에서 그룹을 승인해 줄 것이라는 기대에, 당진 지역의 청년 독신인 정재진 형제는 예배를 볼 만한 대여 장소를 찾아다녔다. 상점을 빌려 일요일마다 집회소로 사용했다는 타국 교회 회원의 일화를 들은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2013년부터 이듬해 초까지, 당진 곳곳의 시립 도서관, 시청 열린 시민실, 복지 회관, 대학교 평생 교육원 등 여러 장소를 물색해 보았으나, 시작할 때의 낙관적인 마음과는 달리 마땅한 장소를 찾지 못하고 시간만 흘렀다.

그리고 2014년 2월, 마침내 당진 그룹의

창설이 승인되었다. 임대 건물을 알아보아도 좋다는 허기가 내려오자, 성도들은 부지런히 건물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특히 윤종순 형제와 황은미 자매, 그리고 부동산 업계에서 일하는 최종미 자매 등이 이를 주도했다. 당진은 새로 건설되는 건물들이 많았지만 적당한 장소를 찾을 때마다 건물주의 반대에 부딪혔다.

“좋습니다. 그런데 어느 교회인가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입니다.” “아, 물론교? 그럼 세 못 줍니다.” 하지만 회원들은 포기하지 않았고, 얼마 뒤 윤종순 형제는 한 건물을 찾았다.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이곳이 그곳이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깨끗한 건물의 위치는 유동 인구가 많은 시내의 중심지였고, 교통의 요지였으며, 위치를 설명하기도 쉬워서 선교 사업의 베이스캠프로서 최적의 장소였다. 임대 계약을 순조롭게 마치고, 마침내 당진 그룹이 탄생했다. 회원들은 주님께서 최적의 장소를 마련하시고 인도해 주셨음을 느꼈고, 그 마음은 감사로 가득 찼다.

### 당진 그룹의 현재와 미래

그 이후로 모든 것이 순조로웠던 것은 아니었다. 당진 지역에 살던 여러 성도들이 직장 등의 문제로 이사를 나갔다. 당진 그룹의 첫 성찬식 참석 회원 수는 예상했던 열다섯 명이 아닌 단 일곱 명이였다. 두 명의 방문자, 한 명의 구도자, 두 명의 선교사를 합쳐도 열두 명이 전부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주님의 사업을 충실히 행하는 당진 지역 성도와 선교사에게 큰 기적을 보여 주셨다. 2015년 4월, 평균 성찬식 참석 수는 약 20명으로 늘어났다. 3월 8일에는 세 명의 구도자가 당진 그룹의 첫 침례식에서 주님과 성약을 맺었다.

당진 그룹을 창설하는 과정에서, 당진 그룹의 회원들은 성도의 노력을 인정해 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보았다. 주님의 ‘경영 방침’에 따라 행하는 당진 그룹이 정말로 ‘주님의 기업’으로 크게 성장하는 날을 그려 본다. ■



“기도의 집, 금식의 집, 신앙의 집, 학문의 집, 영광의 집,  
질서의 집, 하나님의 집을 세우라.

— 교리와 성약 109:8

갖게 해 달라고 주님께 매달렸습니다. 설계도가 잘 완성되도록 70여 명의 회원이 금식 기도 릴레이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 사이 회원들의 신앙도 크게 발전했습니다.”

대부분의 와드 지부와 마찬가지로, 금정 와드 모든 회원은 청소팀을 꾸려 순서대로 교회 건물을 청소한다. 각 청소팀은 보통 세 가족으로

# 기도의 집, 영광의 집

## 부산 스테이크 금정 와드

“**금** 정 와드 회원들에게 금정 와드 건물은 ‘성전’과도 같습니다. 회원들은 조용히 기도하고 싶을 때 교회에 방문합니다. 평일에도 교회에서 회원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들은 예배실에서 무릎을 꿇고 겸손히 기도합니다.”

금정 와드 시설 대표 이계원 형제의 말이다. 이 형제는 2011년에 감독에서 해임되면서 와드 시설 대표로 부름받았다. 금정 와드의 교회 건물이 완공되기까지 회원들의 여러 노력이 있었다. 또한 회원들은 그렇게 갖게 된 건물을 소중히 여기며, 깨끗이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건물은 우리에게 정말 소중합니다. 교회 건물이 완공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온천 와드와 금정 와드가 분리된 지 4년 후에 금정 와드 건물을 위한 부지를 구입하라는 승인이 났습니다. 적절한 부지를 구입할 때까지 2년이 걸렸습니다. 설계도가 나올 때까지 1년 반, 또 건물이 완공될 때까지 걸린 시간들 ... 2009년, 그 영광스러운 헌납식이 있기까지, 금정 와드 회원들은 1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교회 건물을

이루어진다. 팀장의 주도하에 토요일에 모여, 팀원들은 분담한 구역을 청소한다. 금정 와드가 헌납되고 시간이 흐르면서, 회원들에게는 교회를 청소하고 관리하는 것이 좋은 습관처럼 자리 잡았다. 와드 건물이 어찌나 깨끗한지 조금만 소홀히 해도 금세 티가 날 정도다.

물론, 이곳에서도 개인 사정으로 청소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그런 경우의 회원들은, 새벽에라도 와서 임무를 다한다고 한다. 그마저 시간이 안 난다면, 사전에 자신의 팀장과 협의하고 다른 팀의 가족과 순서를 바꾸는 것이 일반적이다.

금정 와드 회원들이 교회 건물을 존중하는 마음은 금정 와드를 성스러운 기도 of 집으로 만든다. 금정 와드 교회 건물은 준비된 회원들에게 계시의 장소가 된다. 이계원 형제는 이렇게 전한다.

“생각과 마음을 잘 준비해야 할 뿐 아니라 예배 보는 장소도 깨끗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영적인 준비는 물리적인 준비와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

# 보이지 않는 것을 믿게 된 이유



최정미 자매  
인천 스테이크  
가정 와드

**20** 14년 초, 휴대폰에 '부재중 전화' 표시가 떠 있었다. 전화를 걸었더니, 어떤 외국인이 받으며 자신을 선교사라고 소개했다. 예전에 영어 회화를 배우러 교회에 갔던 일이 생각났다. 이 통화를 계기로 나는 선교사님을 다시 만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영어도, 좋은 말씀을 배우는 것도 좋았지만 교회에 가고 싶지는 않았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나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잘 믿지 않는 편이기 때문이다. 그러던 중, 자매 선교사 한 분을 새로 알게 되었다. 평범하고 일상적인 대화를 할 때에는 그저 어린 아가씨에 불과했지만, 복음에 대해 이야기할 때에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에 가득찬, 신념을 지닌 선교사였다. 나는, '사람을 이렇게 만드는 종교는

... 다만 설득으로, 오래 참음으로, 온화함과 온유함으로, 그리고 거짓 없는 사랑으로, 친절함과 순수한 지식으로만 되어야 하니, 이러한 것들은 위선이 없이 그리고 간교함이 없이 영혼을 심히 크게 만드느니라-

- 교리와 성약 121:41~42

대체 어떤 종교인가?'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녀는 내가 가진 독립적인 성향과 생각에 대해서도,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었다. 내 이야기에 관심을 기울였고, 내게 조언이 필요할 때 아낌없이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해 주었다. 또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 주었다. 그녀의 모범과 실천이 내 가슴을 울렸다.

누군가의 순수한 사랑, 송고한 봉사와 노력은 한 인간을 변화시키기에 충분하다. 나는 작년 여름에 침례를 받았다. 인간에 대한 사랑을 배웠고, 이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며, 물몬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도 믿는다.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 그분이 존재하시고, 그것을 느낄 수 있다는 걸 이제는 안다. ■

## 요란하지도 강제적이지도 않은 주님의 구원 사업



이승희 자매  
수원 스테이크  
신갈 와드

**천** 사의 모습을 지닌 선교사님들, 교회 성도들의 성실한 모범, 친절함, 이해와 배려, 따뜻함이 느껴지는 분위기 ... 신회원으로서는 나는, 신앙과 믿음에 대해, 경전에 대해 조금씩 배워 나갔다. 교회에 참석하면 친정에 온 것 같은 편안함을 느낄 정도였다.

하지만 진짜 친정과의 문제가 시작되었다. 나의 친정 아버지는 다른 기독교 교회에 다니셨고, 당시 자녀들이 함께 그 교회에 참석하길 강하게 소원하셨다. 아버지의 간곡한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웠던 나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떠나고 말았다.

하지만 선교사님들과 교회 회원분들은 늘 한결같이 자리를 지키며 나를 다정하게 대했다.

길에서 우연히 만날 때면 반가워 하며 교회 소식을 들려주고, 꾸준히 연락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교회에 나가지 않아도 항상 좋은 말씀을 나눠 주시고 나를 예전과 같이 대했다. 이런 것들은 마치 나를 구원해 준 끈과 같은 것이었다.

이런 사랑과 배려가 있었기에, 나는 이 교회를 다시 선택했다. 쉽지 않았지만, 친정 가족과는 건강한 경계선을 지키고, 나의 믿음에 따라 교회로 돌아오기로 최종적인 결론을 내렸다.

한 발 한 발 복음의 정수에 다가갈수록 깨닫는 것은, 주님의 구원 사업은 요란하지도 강제적이지도 않다는 것이다. 오직 사랑과 감동으로, 영원한 시각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 주는 것이야말로 참된 교회의 구원 사업이다. ■

■ 새로 부름받은 선교사

부부 2쌍 / 자매 6명 / 장로 10명

 <p><b>강규이 자매</b> 광주 스테이크 첨단 와드 서울 선교부</p>	 <p><b>권성진 장로</b> 서울 동 스테이크 상계 와드 대전 선교부</p>	 <p><b>김정하 자매</b> 광주 스테이크 첨단 와드 하와이 호놀룰루 선교부</p>	 <p><b>김준학 장로</b> 강서 스테이크 부천 와드 대전 선교부</p>	 <p><b>김희라 자매</b> 청주 스테이크 흥덕 와드 서울 선교부</p>	 <p><b>남윤범 장로</b> 수원 스테이크 신평 와드 서울 선교부</p>	 <p><b>류호걸 장로</b> 대구 스테이크 안동 와드 서울 남 선교부</p>	 <p><b>류호남 장로</b> 대구 스테이크 안동 와드 서울 선교부</p>
 <p><b>유지선 자매</b> 강서 스테이크 화곡 와드 서울 선교부</p>	 <p><b>이소연 자매</b> 대구 스테이크 구미 와드 서울 선교부</p>	 <p><b>이재빈 장로</b> 강서 스테이크 시흥 와드 대전 선교부</p>	 <p><b>정준우 장로</b> 대구 스테이크 중리 와드 워싱턴 페더럴웨이 선교부</p>	 <p><b>조윤빈 자매</b> 창원 스테이크 도계 와드 오리건 포틀랜드 선교부</p>	 <p><b>조해준 장로</b> 광주 스테이크 첨단 와드 캘리포니아 아카디아 선교부</p>	 <p><b>최역락 장로</b> 청주 스테이크 천안 와드 서울 남 선교부</p>	 <p><b>하승헌 장로</b> 대전 스테이크 둔산 와드 캘리포니아 산페르난도 선교부</p>



**김상동 장로, 배경희 자매**  
울산 지방부 신정 와드  
대전 선교부



**송유수 장로, 권미경 자매**  
영동 스테이크 분당 와드  
서울 성전

**역원 및 단위 조직 명칭 변경**

**강릉 지방부**  
원주 지부 회장: 김원희 형제(전임: 최내영 형제)  
강서 스테이크  
화곡 와드 감독: 박종욱 형제(전임: 손용문 형제)

**대구 스테이크**  
구미 와드 감독: 송석현 형제(전임: 윤성욱 형제)  
상인 와드 감독: 장승태 형제(전임: 김영철 형제)  
수성 와드: 대명 와드와 수성 와드가 통합되어 수성 와드가 됨  
수성 와드 감독: 길희근 형제(전임: 대명 와드 이수강 형제, 수성 와드 길희근 형제)

**부산 스테이크**  
부산 스테이크 회장: 조봉재 형제(전임: 이순철 형제)  
부산 스테이크 회장단 제1보좌: 서원만 형제(전임: 백상봉 형제)  
부산 스테이크 회장단 제2보좌: 정원몽 형제(전임: 전영준 형제)

**서울 스테이크**  
신촌 와드 감독: 전영표 형제(전임: 김남수 형제)  
일산 와드 감독: 권상조 형제(전임: 하해익 형제)

**순천 지방부**  
순천 지부 회장: 김동현 형제(전임: 최진우 형제)  
여수 지부 회장: 김창권 형제(전임: 황인철 형제)


**홍성 지방부**  
홍성 지방부 회장: 윤종순 형제(전임: 정석환 형제)  
홍성 지방부 회장단 제1보좌: 김승환 형제(전임: 김용갑 형제)  
홍성 지방부 회장단 제2보좌: 김영민 형제(전임: 윤종순 형제)  
대전 지부 회장: 한상필 형제(전임: 김영민 형제)  
서산 지부 회장: 김용갑 형제(전임: 김승환 형제)

■ 새로 부름받은 봉사 선교사

부부 2쌍



**김동우 장로, 김순남 자매**  
서울 남 스테이크 영등포 와드  
복지부



**송평종 장로, 양계영 자매**  
서울 스테이크 신촌 와드  
자립 지원 서비스